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제3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해양이란 인류의 공유자연 앞에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한 것으로 일본의 극한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특히 “오염수를 안전 장치 없이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것은 인접국의 해양 생태계와 식생활,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생화학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계획과 추진과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도 요구했다. 시의회



전주시의회는 19일 제3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관계자는 “통상 결의안 채택은 회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개최 명했다. 마지막 날 채택하는데, 이번의 경우 첫 날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윤상기자



삼천도서관서 유명 작가 추천도서 만난다

7월 15일까지 ‘그 작가의 책, 그 작가가 사랑한 책’ 특별 전시

개발형 창의도서관으로 재개관한 삼천도서관에 가면 유명 작가들의 추천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

전주시립 삼천도서관은 오는 7월 15일까지 1·2층 전시서가에서 ‘그 작가의 책, 그 작가가 사랑한 책’ 특별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특별 전시에는 맞춤형 온라인 작가큐레이션 플랫폼인 북크루(bookcrew.net)의 ‘책장 위 고양이’ 시즌 1·2 참여작가 11명이 참여해 본인인 기고했던 에세이와 저서, 전주시민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등 88권을 소개한다. 평소 책으로 접하면서 만나보고 싶었던 작가의 애장도서와 그 책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공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천도서관 특별전시 이후에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책가방

도서관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김민섭 작가는 “작가로서 자신의 글과 책이 시민들에게 전시될 수 있다는 건 큰 영광이고 기쁨”이라며 “책장 위 고양이의 전체 테마가 ‘연결’인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이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계속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새롭게 재개관한 삼천도서관에서 11명의 작가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책이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 전시에는 김민섭, 김흔비, 남궁인, 문보영, 오은, 이은정, 정지우, 김겨울, 박종현, 제리, 핫펠트 등이 참여한다.

/김윤상기자

전주농기센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친환경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오는 30일까지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민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인증기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를 경영해야 한다.

지원 면적은 농가당 0.1ha~5ha다. 지원 단가는 유기농은 1ha당 논 70만원, 밭 140만원, 무농약의 경우 1ha당 논 50만원, 밭 120만원이다.

직불금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실시되는 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한 번 인증하면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 지급된다.

/김윤상기자

청소년 창의력·자기주도력 겸비한 인재로 키운다

전주시 야호학교, 1기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시작

전주시 야호학교는 지난 17일 야호학교 인후공간에서 ‘2021년 1기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는 주말과 방과 후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구성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기획하고,

함께 즐기며, 함께 만들어 가는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활동으로, 청소년들을 창의력과 자기주도력을 겸비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날 청소년 45명은 특목 활동단 6



전주시 야호학교는 지난 17일 야호학교 인후공간에서 ‘2021년 1기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명과 함께 임시 팀 편성, 관계 형성게임 활동, 활동일지 작성 등을 진행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자치 프로젝트를 운영한 뒤 오는 7월 프로젝트 발표회를 갖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개화연(뮤지컬), 달보드레(카페메뉴 개발), 시나브로(레진공예), 요리조리룩(레시피 개발), 3인3색 벽구미기(벽화 그림) 등 다양한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프로젝트에 참석한 청소년은 “코로나19로 그간 연기됐던 자치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돼 기분이 너무 좋고 새로운 친구들과 색다른 활동을 할 생각을 하니 설렌다”고 전했다.

우영영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선택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자존감과 찾고 참여자간의 유대감이 형성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건강한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사람 온(溫)마음 푸드 나눔터

시, 13개 식품업소 물품 후원... 소외계층 다양한 먹거리 지원

‘천사도시’ 전주에서 취약계층의 끼니 해결을 돕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동 주민센터는 따뜻한 나눔의 장으로 변신하고, 동네빵집과 식품가게들도 후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전주사람 온(溫)마음 푸드 나눔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역 내 지역업자 등 주민들이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기부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시민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삼천2동의 ‘사랑이 꽃피는 병장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생단체,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등의 협력을 통해 기부업체를 적극 발굴해나갈 방침으로, 후원받은 물품들은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즉시 지원된다.

시는 나아가 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

라 지역의 대형마트 등에도 기부물품 보관함을 설치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조만간 동네빵집과 식품가게 등 13개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부식품 제공사업 물품 지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들 업소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제빵류, 어묵류, 신선식품, 야채류, 과자류, 유제품 등 다양한 먹거리를 후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물품 지원 협약과 푸드 나눔터 운영을 통해 천사도시 전주에서 주민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부물품 후원을 약속해 주신 13개 식품업소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전주사람 온(溫)마음 푸드 나눔터는 지역 주민이 주민들을 직접 돌보며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